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강충현

발행인 : 김 창 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0월6일 임시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성종목사 본교회 위임목사 추대

오늘(13일) 4부예배후 공동의회서 결정

겸손한 새옷을 입고 하나님을 중심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능력있는 종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성종 목사 이력서

성 명 : 신 성 종 (한문: 辛成宗)

출 생 지 : 충북 수안보

본 적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8-174

생년월일 : 1937년 2월 17일생

◆ 학 력 ◆

1964년 2월 : 연세대 졸업(B. Th)
1965년 8월~1967년 1월 : 미국 피츠버그 신학교 및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학
1968년 12월 : 총신 신학연구원 졸업
1971년 5월 :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 M)
1973년 5월 : 미국 템플대학원에서 문학석사
1974년 5월 : 동 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철학박사

◆ 학교 경력 ◆

1964년 3월~1965년 7월 : 개성고등학교 교사
1975년 6월~1976년 12월 : 고려신학교에서 학감
1977년 5월~1977년 12월 : 아세아연합신학원 조교수
(교무처장)
1978년 3월~1983년 2월 : 명지대학교 부교수(교목실장)
1981년 3월~1987년 : 총신대학신학대학원 교수
(83년에 부교수에서 교수가 됨)
1984년 3월~1984년 6월 : 이스라엘 헤브라대학 객원 교수
1986년 3월 :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무처장
1987년 3월 : 총신대학원장
1987년 7월 : 원대신학교 교장

◆ 교회 경력 ◆

충현교회 부목사, 명지교회 담임목사, 충현교회 협동목사, 원대신학교 협동목사
(1987년 7월부터)

◆ 사회 경력 ◆

지역감정해소위원회 피진 및 중재위원, 장로위원장 역임
원 X.W.C.A 이사, 생명위원회 이사
국동방송 자문위원, 생활의 대전교회 자문위원장
한국기독교 선교회 회장, 중원회의회 회장
국제 선교회 회장, 대전방송 선교회 회장
대전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국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대전기독교동지회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 저 서 ◆

① 신약총론 ② 신약역사 ③ 요한 공리 ④ 신약신학
⑤ 엠마오성경연구 ⑥ 엠마오주석성경 ⑦ 기독교ABC
⑧ 계지목장해 ⑨ 로마서강해 ⑩ 사도행전강해
⑪ 요한복음강해 ⑫ 한사람을 찾습니다 ⑬ 예수 생애(공저)
⑭ 최후의 해방전야(공저) ⑮ 교회와 국가(공저)

◆ 역 서 ◆

예배소서(헨드릭슨)
신약성서의 주요 해설(비블레이)
히브리적 사고와 기독교(윌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레드)
현대의 복음서 연구(케스트레이크)
신약신학(레드)
사해사본, 신약사본(베이커)

◆ 논 문 ◆

최근 성경해석학의 동향과 문제점 외 100여편

당회는 지난 6일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본교회 후임목사로 현재 대전중앙교회 시무 중인 신성종 목사를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에 준하여 후임당회장 청빙에 따른 공동의회를 오늘(13일) 4부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기로 공고하였으며, 전교인이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토록 촉구했다.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세례교인이면 모두가 참가할 수 있으며, 결의권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로 위임목사로 추대받은 신성종 목사는 충북 수안보출생으로 별함과 같은 학력·경력·신실한 목회자로서 우리 충현교회에서 새례를 받고,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시절 부목사로 재직하면서 대학부 및 교육부서에서 후배양성에 전력한바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87년 7월 가장 어려웠던 대전중앙교회에 부임하여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홀로타졌던 교회행정과 목회 불균형을 일소하고, 교회부흥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4년 후 대전중앙교회는 교인배가 늘고 지역사회의 사역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 훌륭한 목회자로 인정받았다.

외면적으로 서면적 인상이 짙은 신목사는 겸손과 진실의 목회사역이 온 교인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회 및 설교가라는 덕네임이 불기도 했다.

신성종목사 위임목사 추대하기까지 경위

신성종 목사님은 운영탁·이종운 목사님과 함께 본교회에서 원로 김창인 목사님의 신앙지도를 받으면서 1957년 주일학교 고등부로부터 성장하셨을뿐 아니라, 본교회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으로부터 치음 새례를 받은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신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미국 피츠버그 신학교를 거쳐 총신 신학연구원을 졸업하시고, 지금까지 보수적인 전통신앙을 고수하신 분으로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 미국 템플대학원에서 문학석사를 받으신 뒤, 동 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신, 세계적으로 유수한 신학의 권위자로서의 높은 학자적인 위치도 차지하신 편서, 1975년 본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뒤 부목사님으로 시무하시면서 대학부 지도목사로 많은 후진들을 양육하시기에

전념하셨으며, 한편 아세아연합신학원, 명지대학교, 총신대 신학대학원 등의 교수를 역임하셨고, 총신대학원장을 거쳐 현재까지 대전신학교 교장으로 국내외의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다년간 목회자교육에 앞장서신 신학자이기도 하시다.

또한, 목회경력에 있어서도 충현교회를 비롯하여 명지대학교, 대전중앙교회 등 30년 가까운 풍부한 목회의 경험을 쌓으시면서, 어느 교회에서나 튼튼한 신학적 기반과 확고한 보수신앙의 수호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탁망 높은 목회자상을 유지해 오신 분이다.

우리 충현교회에서의 시무경력 은 1967년3월 전도사로 봉직하시기 시작하여, 1975년부터는 부목사로 8년간 시무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1주를 새벽 1부예배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하실 때, 그 박학하신 신학적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며, 특히 대학부 지도목사로서 대학생들의 바른 신앙지도로 젊은 지성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셨다는 사실은, 당세의 대학부를 거친 많은 성도들이 어구동성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목회에 있어, 언제나 겸손하지 이 자신을 들어내지 않고, 하나님만 대세우며,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진실한 신앙의 자세와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성도들과 스스럼없이 대하시며, 다른 교역자님들이나 장로님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랑과 화평으로 은혜롭게 대처하시는 원만한 신앙인격을 지닌 분이시다.

4년 전에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어, 후임으로 새로 3면으로 계속



시편강해

악한 자의 혀 (시 52:1-9)

김 창 인 원로 목사

혀는 음식을 먹을 때 수고를 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자의 혀는 우는 자를 위로합니다. 이 혀는 좋은 것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의 혀는 의인을 모략하고 거짓말을 이중으로 합니다. 마귀의 나팔로 이용이 됩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잘못 놀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것도, 조심스러운 것도 혀입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도망할 때에 지은 것입니다. 충신인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한 핏박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시 도망가다가 사울왕의 아들이며 장차 왕이 될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간다. 내게 만일 죄가 있으면 네 아버지가 나를 테러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네가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깜짝 놀라면서 “그런 큰 일은 아버지를 잘못 보고 하는 말인데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그래 알려줄 수 있지”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내게 알려다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이틀 동안 숨어 있다가 활을 쏘려 나온 것처럼 활을 쏘 때에 활촉을 쏘으러 가는 아이에게 저 앞에 있다고 말하면 도망가고 이쪽에 있다고 말하면 돌아와도 된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둘째 사위이며 장군이므로 사울왕과 가까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틀째에 다윗이 아침 식사에 나오지 않자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이 고향에 잠깐 다니러 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뛰야 죽일놈을 놓쳤나. 누가 보냈어?”라고 하였고, 그런 사울왕을 말리는 아들 요나단에게 “이 폐역무도한 녀석아, 창으로 찔러 죽일 놈아”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튿날 약속한 곳에 가서 활을 쏘고 화살을 쏘으려는 아이에게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살촉을 쏘는 아이를 보낸 다음 다윗을 얼싸안고 울면서 “하나님이 네 생명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마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도망을 가다가 늪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에게서 양식과 무기를 얻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본 도역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모든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늪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쓴 글이 시편 52편입니다.

1. 악한 자의 중심과 혀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시 52:1)

악한 자는 강포하고 잔인한 자입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악한 계획을 꾸며 놓고는 자랑을 합니다. 이들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줄을 몰라서 자기의 계획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믿고 자랑을 합니다.

다리오왕 때의 일입니다. 왕은 세 사람을 택하여 장관들의 일을 살펴보고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 다니엘의 보고가 뛰어났으므로 다리오왕은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된 나머지 두 사람이 자기들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으로 나아가 “대왕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고로 우리들은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고 대왕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다리오왕은 이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아온 그들은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가 “한 달 동안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명령했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대왕님의 명령을 업신 여기고 자기가 섬기던 신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다리오왕은 속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너무나 훌륭했

간사한 혀, 거짓된 혀, 하나님 심판당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너무 똑똑하게 세웠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돌 보시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되고도 남을 줄 알고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악한 자의 계획과 악한 자의 혀는 거짓말이요 악독합니다. 그 중심에 선보다 악을 좋아합니다. 진실보다 거짓을 따라잡니다. 돈에 눈이 어둡고 인정이나 권세에 끌려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동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자기 악한 계획에 혀를 함부로 놀립니다.

이들의 혀는 심한 악을 꾀하여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남의 생명을 아주 쉽게 죽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2. 악한 자의 결국

간사한 혀, 거짓된 혀, 잔인한 혀, 의인과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죽여버리는 삭도와 같은 혀를 가진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간사한 혀 네가 잠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

여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시 52:4, 5)

장막에서 “네 뿌리를 뽑는다”는 말은 울타리가 둘러 있고, 파수병이 지킴으로 누구도 못들어가고 집안이 튼튼하여 누구도 손대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있는 나무를 일만 뜯고 가지만 찢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3. 의인의 교훈

바로 믿는 신자가 볼 때 악한 사람이 당장은 세력도 달당하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람이 불면 죽겠이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임시로 이용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 죽겠이로 날아갑니다.

둘째로, 악한 사람을 비웃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돈 많다고 뽐내고 권세 당당하다고 뽐내면서 못된 짓을 함부로 하면 자기 울타리 안에 있던 뿌리까지 뽑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 권세 있는 자가 세도를 부리는 것을 보고 비웃음이 나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구름과 같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고, 자기의 세력이나 계획으로 힘을 삼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마당가에 나갔다가 큰 조개 껍질을 발견하였습니까. 지황이로 그것을 뒤집어 놓으니 그 안에 숨어있던 게가 처음에는 놀라서 도망가다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의 발을 물었습니다. 도망을 갔으면 그냥 두었겠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황이

로 치니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껍을 뺀 자는 회개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하면 몰라도 돌아서서 해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부서울 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억울함을 당한 만큼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빌음을 지키면서 억울할 때 참고 회개하고, 참고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시 52:8). 하나님 집 뜰 안에 있는 감람나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감람나무, 가뭄이 들 수 없는 감람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감람나무처럼, 인간이 볼 때는 외로운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계십니다.

나무는 뿌리의 잔액이 가지까지 올라 올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가 사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가슴에 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는 아무리 이름이 굉장해도 참된 신자일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 집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마침내 때가 되니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뜰에 있는 감람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만 다음에 보고 깨달은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축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머뭇거림이 없이 회개합니다.

인간적으로 힘이 튼튼하고 세력이 당당하고 지식, 학식,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간사해지고 허가 진실이 없으면 악한 자로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로 취급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악사를 꾀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뜰 안에 있는 나무의 뿌리까지 뽑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뿌리까지 뽑히는 멸망 당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1면에서의 계속

은 당회장을 청빙할 당시, 성도들 간에는 이종윤 목사님과 함께 신성종 목사님을 모시자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회에서의 투표결과는 근소한 차이기는 하였지만, 이종윤 목사님의 표가 많았으므로, 신성종 목사님을 지지하던 당회원들도 깨끗이 이에 승복하여, 공동의회를 거쳐 이것을 확정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훌륭한 순종과 겸양의 본을 보여 주신 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모시려고 하는 신성종 목사님이었다.

그분은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순히 승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도 정들었던 충현교회를 스스로 떠나시는 용단을 내리셨으니,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묵묵히 정든 모교회를 떠나셨던 신목사님은, 먼 후일에야 그때의 심경을 측근에게 이렇게 토로하셨다 한다. 「내가 자라고 또 정성을 다하여 섬기던 충현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 하나는 새로 오시는 이종윤 목사님에

게 조금이라도 심적 부담이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만장일치로 청빙을 가결해 주신 성덕교회 보다는 문제를 안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대전중앙교회에 가서 부족한 목회공부를 현장에서 시련을 통하여 수련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의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신목사님의 사랑과 겸손을 겸비한 신앙인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7년, 분열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대전중앙교회에 부임하신 신성종 목사님은 그분이 지닌 높은 학식과 인품과 덕망을 가지고, 말씀중심의 성경공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도운동을 통하여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결속시켜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1천명 교인 수를 3년 동안에 4배로 부흥시키는 양적 성장까지 실현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수행해 놓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는 기사를 보면, 「…… 그때의 상흔은 지금도 남아,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따금 통증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간혹 회회가 생기는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으리라 보고, 제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스스로 채찍질하고 부단히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목회철학을 「바다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신목사님의 지론은, 바다에 많은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들이 살고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가진 성도들이 많으니, 목회자는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재능과 특기를 발휘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어디까지나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충현교회에서 자라셔서 세계적인 석학이요, 덕망 높은 목회자이신 신성종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된 것은, 인간이나 교회의 뜻이기 이전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정병정위를 통하여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상하신 인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면,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여, 인본주의의 과오를 범하다가 급기야는 이종윤 목사님의 신실성과 도덕성에 관한 과오로 인한 사면으로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교만과 사람 중심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길을 찾아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원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 교회는 먼저 명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회로 하여금 새로운 당회장을 모시기 위한 당회에서도, 모든

당회원들의 심령들에 감화감동케 하여, 누구는 찬성이요 누구는 반대요 하는 투표로 피차에 상처받지 말며, 또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임하실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신성종 목사님을 청빙할 것을 가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공동의회에 내 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충현교회의 신실한 성도들로 구성되는 공동의회에서도 당회가 결정한 방법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성종 목사님의 청빙을 만장일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가결되기를 온 성도와 함께 바라고 또 바라마지 않는다.



▲ 지난 당회에서 본교회 위임목사로 추대된 신성종목사 가족일동 모습

기독교 윤리 실천 사역에 있어 범죄 문제 보다 더 어려운 영역은 아마 없을 듯 하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다수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자들에게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쓰레기이며 더러운 사람들 또는 부랑자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대견할 우리 집 담을 넘어와 결혼예물 등을 훔쳐간 녀석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강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중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누이를 강제로 끌고가 육보이고 결국 살해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복수하고 싶은 분노와 극형까지도 당연하다고 여길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겠는가?

베룩 범죄로 인해 흥분되어 있더라도 크리스찬들은 범죄인을 처벌할 것을 고무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청정은 너무도 분명히 명명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논 단

범죄와 기독교

지난 10월 1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월례강연회에서 본 교회 부설 기독교사회연구소 김용진 박사가 "범죄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것의 일부분이다. (편집자주)

김용진 박사(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장)

라고 말씀하신 뒤 이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신다(5:30-39). 같은 논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와 불화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와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단언하신다(마 5:23, 24).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밝히고 있다(요일 4:20).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범죄피해자를 돌보는 모델로 삼아져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행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만큼 복수를 철저히 금하신 것과 범죄자는 마치 일반인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적 인식이 그릇됨을 지적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혀왔다. 로마법과 히브리 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죽일 법정이 이 여인을 끌고 온 모두에게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 "죄를 고 착한" 우리는 예수께로 어찌

럼 "더럽고 악한"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의 판단을 요청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쳐다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놀랍게도 예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흩어졌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를 하셨다. 사형제도를 묵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용서와 중보의 정신으로써 그들의 간계에 대응하셨다. 그렇게 하실

으로써 당시의 세상법과 종교법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셨고 마치 범죄자에게 모든 책임이 물어져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성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흑백론적 이분적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셨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나 유흥가에 팔아넘길 목적으로 여자들을 납치하는 이른바 인신매매범에 대해 성인

남자들 중 여자 종업원이 술집부를 하는 술집이나 유흥가에 가본 일이 없는 자만이 분노를 느낄 자격이 있다는 말인데, 이는 술집과 유흥가를 찾는 그들이 바로 유흥녀의 수요를 늘게 한 자들로서 공급적인 인신매매범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세속적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범죄란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이고 따라서 범죄행위의 제일차적 피해자는 국가라고 여겨지는 세상적 범죄정책에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범죄행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이고 따라서 그것의 해결책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인간 관계의 평화를 되찾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히브리어에서 평화의 정의, 화합, 올바른 관계 등을 가리키는 단어인 샴롬(Shalom)과 피해보상(restitution)을 가리키는 단어인 샴(Sha-

lam)은 서로 같은 이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범죄 사건이 나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범법자를 벌주는 것으로 범죄 사건이 취급되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영업을 화물차의 약 40퍼센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이 사실상 어려운 '달리는 흉기'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다.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는 제법 많은 수의 교통과실치상(사)범들이 형을 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지 못해 형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화물차 운전자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면으로 사고의 결과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법규나 교통법규를 어긴 죄에 대한 발판 가해자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만일 성경적인 교훈을 따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로 하여금 교도소 내에서도 밖에서도 생업을 가치고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수입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게끔 하는 편으로 해결되어야 가해자의 재범도 막고 국가의 경비도 줄이고 사회 정의도 세우는 일이 된다고 본다.

다음호 계속

독자의 광장

“지금은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홍경숙 집사

88년 봄, 서울로 이사하면서 등록하기로 결정한 충현교회는 강단에 서신 모습을 뵈기만해도 어인일인지 눈물을 흐르게하는 아름다운 노목사님과, 신앙과 지성,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의 건재가 저절로 교회에 대한 자랑으로 가슴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안내하는대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다짐하면서 새가족부를 기쁨으로 수료했고 교사양성부를 거쳐 교사와 다락방장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의 사태는 경악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믿기지 않음(아니 어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분노, 섭섭함의 파도를 거쳐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중에 「왜 그 일의 현상 자체에 매달려있는가?」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성직자에 대한 불신, 성도간의 반목, 교회의 분열...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 조금 천천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갈래 갈래 나뉘어진 생각과, 추측, 그 끝에 신앙의 기반을 메달아 놓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이 땅의 하늘나라」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충현교회를 깨끗케하시며 견고케 하셔서 내 백성, 나의 양떼를 결코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그 사랑의 간섭임을 헤아리게 되자 나 자신을 먼저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는 밖의 어떤 현상들을 더 열심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가 반성하면서 자신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여겼던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세계를 교구로, 한국교회를 어거해나가시는 크신 종들을 위해 박수만쳤지 그 나아가는 걸음이 바른 것이기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마치 신앙인으로서의 모범답안처럼만 목사님들을 생각했을 뿐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자세가 되어있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회개가 일었습니다. 크건 작건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적 자리를 점검하여야 할 좋은 시간을 주신 것으로 여기셨으며 자신의 반성이, 회개가 시작되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록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만큼 크고 크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아버지 하나님 /
갈 바를 모르는 양떼들이

장로·안수집사전교인 특별기도 13일 공동의회 앞두고

본교회 장로 일동은 지난

안수집사, 권사 후보 교육 17일부터

지난 9월 피택된 92년도 안수집사 후보 6명과 권사 후보 50명에 대한 교육이 오는 17일(목)부터 약 5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 교육은 임직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수집사 후보 교육은 매주 목요일, 권사 후보 교육은 매격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실시된다.

개강예배는 17일(목) 저녁 7시에 베다니홀에서 드린다.

놀라 넘어지거나 벼랑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막 아버지의 전을 찾아온 어린 영혼들을 더욱 친히 돌보아주소서. 새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맑게 울려퍼지는 교회로 태어나

도록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금은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는 때임을 저희들로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교회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또 한번의 체험어린 고백을 하게 하소서.

10일 저녁 13일 공동의회를 앞두고 특별기도회를 가졌으며, 69명의 안수집사들도 지난 11일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전교인 금요일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후임 당회

장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의 원만한 진행, 그리고 충현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과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금요철야기도 전교인 확대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는 금요철야기도회는 10월 첫주부터 교구별에서 전교인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당회가 결의했다.

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갈릴리홀에서 갖게 되며, 계속해서 기도할 교인을 위하여 소석관 107호 사랑부실을 개방기로 했다.

• '91 장애인 복음화대회

지난 10월 8일부터 3일동안 '91 장애인복음화대회가 한국밀알선교단이 주관했고 이 복음화대회는 “장애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주제를 내걸고 진행되었다.

교회설립 기념행사

교회설립 제38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 성극경연대회, 선교옹변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성경암송대회는 10월 20일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하며, 성극경연대회는 10월 25, 26일 예선과 본선을 갈릴리홀에서 개최한다.

한편 동 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원만한 대회진행을 소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됨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바로 그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 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는 참으로 크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일을 이루시기도 하시며, 그는 참으로 세밀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분같으나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주에 충만히 임재하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자기의 작정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공중에 나는 참새 한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또한 아름다운 무지개로 친히 우리에게

모두 겸손히 무릎을 조아립니다. 나의 열심이 주님보다 더 앞서 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늘 주님의 뒤만 따라갑시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피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너희는 잠잠히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무지개

성열송 집사

약속을 주신 교회가 아니던가요? 어찌 우리를 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시 약속의 무지개를 어찌 그분이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심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비온 후의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더욱 바르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든든히 주님 안에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복된 대열에 낙오자 없도록 아버지 영광스런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 15:5-7)

이제 가닥 가닥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각각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함께 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얼마든지 능히 아름답게 하실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복된 대열에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고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무지개로 약속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 신간안내

낮은 자의 평강 양승훈 /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출판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데오도르 에프 / 바울서신사
사랑과 성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들 조쉬맥도웰 / 나침반사
당신의 자녀 교육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브루스테이 / 나침반사
진리와 오류를 어떻게 분별할까? 제이 에덤스 / 생명의 말씀사
캠퍼스 이단 현성길 / 학생 신앙운동
나를 소개합니다-예수 이동원 / 나침반사